



공무원근면위, 최종 조율 돌입



▲ 8월 28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9차 공무원 근면위가 진행되고 있다.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공무원 근면위’)*는 2024년 6월 12일 발족 후 3개월간 전원회의 10차례, 간사회의 7차례를 개최하는 등 현재 심의 과정을 진행 중이다.

* 공무원 노조법 시행령 개정(‘23.12.11.)에 따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설치

공무원대표, 정부교섭대표, 공익으로 구성된 위원 15인은 그간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왔다. 전원회의에서는 제도 관련 조사·연구, 해외사례 등을 보고받고, 주요 쟁점사항에 관해 토의를 진행했다. 간사회의에서는 전원회의에서 논의가 필요한 세부 쟁점 조율 및 준비를 진행했다.

2024년 8월에는 공무원 노조활동에 관해 현장방문 실태 조사를 실시, 공익위원을 중심으로 공무원 노사관계 특성을 집중 분석하였다. 현재는 공무원대표 측, 정부교섭대표 측에서 각각 면제한도 제시안을 제출한 상황으로, 노정(勞政) 양측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조사 주체 : 공무원 근면위 공익위원(4인) 및 전문가(노무사)조사
기간 : ‘24.8.1.(목)~8.12.(월) 조사 대상기관 : 행정부 부처 4개소



▲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공무원 근면위 위원단

광역자치단체 6개소, 기초자치단체 6개소, 교육청 4개소

향후 공무원 근면위는 현장 노사관계 및 노조 조직률, 민간 근로시간면제제도와의 관계, 국민 정서 등 직·간접적 요소를 폭넓게 고려해, 공무원의 정당한 노조활동이 합리적 수준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의할 계획이다.

한편, 공무원 근면위의 의결 사항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고시하게 된다. [eslc](http://eslc.go.kr)

담당 류형민 사무관

“노동시장 개혁만큼은 대화로 풀겠다”

- 권기섭 위원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방문하여 간담회 가져 -



▲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오른쪽)이 3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해 최진식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경사노위 권기섭 위원장은 9월 3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이하 '중견련')를 방문하여 최진식 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과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권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중견련은 기업성장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도 기여해온 대표 경제단체이자, 공식적인 사회적 대화 주체”라며, “사회 각 분야에서 갈

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노동시장 개혁만큼은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견련에서도 적극 나서 달라”고 말했다.

이어 권 위원장은 “위원회도 사회적 대화 플랫폼으로서의 중심점 역할을 하겠다”며, “미래세대와 ‘약자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3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열린 취임 인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권 위원장

“미래세대와 ‘약자 보호’ 위한
노동시장 개혁 함께하자”

”

한편 경사노위는 본위원회 참여 단체는 물론, 각급 노사단체를 다양하게 만나 폭넓게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eslc**

담당 이현욱 전문위원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위해 중앙·지역간 연계 모색해야”

- 권기섭 위원장, 전국지역노사민정협의회 집행부 간담회 -



▲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9일 경사노위 위원장실에서 열린 전국지역노사민정협의회 집행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권기섭 위원장은 9월 9일 전국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 이종화 회장 및 집행부 주요 간부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권 위원장은 “국가차원의 사회적 대화는 지난 20년 넘게 노하우를 쌓으며 지금의 경사노위란 기구로 제도화되어 많

은 성과를 냈다”며,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 지역과 업종을 아우르는 중층적 사회적 대화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권 위원장은 “중앙지역간 사회적 대화의 연계 및 협력 체계 구축으로 주요 의제 등을 활용하여 지방을 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화 회장은 “경사노위와 협의회의 소통을 통한 중앙·지역 간 연계 의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안정화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향후 ‘지역 사회적 대화 포럼’ 정례화(하반기 예정)와 ‘지역 단위 사회적 대화 활성화 워크숍’을 열어 지역 차원의 사회적 대화 의제 개발 등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SLC**



▲ 권기섭 위원장이 참가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담당 이현욱 전문위원

권기섭 위원장,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위」위원장 겸임



▲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8차 전체회의가 11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 열렸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경사노위 산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을 겸임하기로 했다.

이번 겸임은 이원덕 전 특위 위원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제7차 특위 전체회의(‘24. 8.28.)에서는 특위 위원장 궐위에 대해 간사협의회에 일임했고, 같은 날 진행된 특위 간사협의회(노사정 부대표자회의)를 통해 권기섭 위원장이 특위 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권기섭 위원장은 제8차 특위 전체회의(‘24.9.11.)부터 위원장 직을 수행하게 됐다.

권기섭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위원회 대화의 중심 회의체인 특위 위원장까지 겸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



▲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특위에서 신임 위원장을 맡아 8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며, “특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가 미래세대를 위한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사정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SLC**

위원회 유튜브 '더 생생한 소식을 원하시면' 유튜브 검색창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검색하세요.

경사노위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보세요!

위원회 최신 소식과 노동현안 토론 등 다양한 정보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찍고 지금 바로 구독해 보세요!